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맘의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그 길을 따라 걷다” 성지 순례 소감문

서청주성당 이영숙 안젤라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시복시성기원 순례 안내 책자를 보며 나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보고 싶다는 원의로 순례를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한 해인 2021년,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의 기적심사가 통과되어 복자품에 오르는 영광을 고대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재추진을 통해 언젠가는 꼭 승인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순례의 여정이 한국의 바오로 사도인 길 위의 사제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에 티끌이라도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의 순례 여정은 2021년 3월 말에 시작하여 10월 말에 완료하였는데 더운 여름엔 쉬고 봄, 가을로 부지런히 다니며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처음엔 저의 지인들과 평일에 다니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한두 명이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면서 주말을 이용해 우리 가족끼리 먼 거리를 다니며 여행을 겸할 수 있었습니다. 순례의 소감은 순례순서에 따라 적어보고자 하며 저의 순례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것도 나름 의미 있으므로 간략히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

1. 진천 배티성지 (2021.3.31.)

최양업 신부님의 맘과 그분의 발자취가 가득한 이곳. 내가 1997년에 영세하면서 처음으로 와본 이곳 성지에서 야외미사를 하며 장봉훈 당시 주임신부님의 강론을 통해 최양업 신부님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이후로도 본당 청년들과 자주 순례하며 맘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님에 대해 듣고 최양업 신부님의 열정에 감동했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음에 자랑스러웠다. 이러한 추억이 깃든 거룩한 땅에서 본당 자매들과 첫 시작을 함께하며 박해받던 시기 신앙의 선조들의 순교영성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2. 군산 신시도 (2021.4.7.)

고국 땅을 눈앞에 두고도 눈물을 흘리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부제 최양업의 모습을 생각하며 나도 신시도 앞 푸른 바다를 한참을 바라보며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던 제자들처럼 우리 세 명의 자매들도 신부님이 난파 후 체류하셨다는 신시도를 향해가며 우리와 함께 머물러계신 주님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3. 경주 진목정 공소, 울산 살티순교성지, 울산 병영순교성지 (2021.4.9.)

산속으로 한참을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진목정 공소. 산속은 수채화 그림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열린 새싹이 돌아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신부님이 방문해서 성사를 준 공소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아담한 집 한 채를 둘러보며 신부님의 발걸음과 그분의 사제로서의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은 울산 살티공소로 이동하였는데 공소 앞엔 탱자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고 마치 예수님 가시관을 보는 듯했다. 기도 후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 서울서 오셨다는 네 분의 할머니들이 우르르 봉고차에서 내려 공소 안에서 예수님을 부르며 연신 큰절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와 똑같은 순례 책자를 들고 계셔서 더 반가웠고, 신부님이 정말 골짜기 구석까지 신자를 만나러 다니셨음을 알고 놀라웠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매우 세찬 늦은 오후에 도착한 병영순교성지는 직원은 이미 퇴근하여 내부는 들어갈 수 없었고, 남편과 함께 밖에서 서둘러 둘러보고 기도하며 시간이 없음이 조금 아쉬웠다. 성당앞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리 세 명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적힌 글귀를 보며 허인백 야고보, 김종륜 루카, 이양등 베드로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용감함을 느낄 수 있었다.

4. 보은 명예목 교우촌 (2021.5.12.)

명예목은 세 번째 순례인데 이번엔 같은 성당 자매들과 함께 와서 성사보고 미사 드린 후 신부님의 성지 안내를 받았다. 다음 기회엔 조용히 와서 피정의 집에서 피정하며 묵고 싶어진 곳이다. 함께 갔던 한 자매는 성지를 다녀온 후 지향하던 기도가 이루어져(취업) 특별히 은총을 받은 곳이라며 기뻐하기도 하였다.

5. 음성 봉암공소 (2021.5.20.)

비 내리는 오후 다른 자매와 함께 방문한 작은 공소. 계속 공사 중인 곳으로 이곳이 잘 개발, 관리되어 더 많은 신자들이 찾기를 기원했다. 공소 건너편에 민간인 집처럼 보이는 집이 있었고 이곳에 공소를 아끼는 봉사자가 상주해 계셨는데 우연히 초대를 받고 들어가 차를 마시며 공소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맹동성당 신부님이 자주 오셔서 포크레인을 직접 운전하여 공소 주변을 관리하고 계심을 들으며 성지개발비용도 많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6. 안양 수리산 교우촌 (2021.9.21.)

이곳은 시댁과 멀지 않은 곳이어서 추석 차례를 지내고 가끔 온 가족이 수리산으로 등산을 한 후 하산하는 코스에 있는 성지이다. 산속에는 잣나무가 많아 미리 비닐봉지를 챙겨 송진 냄새 진동하는 잣송이를 통째로 주워오는 즐겁고 특별한 산이다. 비신자인 시댁 식구들도 이 성지를 지나며 안내표지를 읽거나 관심을 보였던 곳으로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님의 부모인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이성례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 살던 곳이라고 안내해 드렸다. 성지 입구 왼쪽에는 산 밑으로 작은 계곡물이 흘러 여름엔 유원지가 되다시피 매우 시끄럽고 평상시엔 많은 등산객이 이곳을 지나가는 곳이어서 성지개발에 어려움이 많겠다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7. 제천 배론 교우촌 (2021.10.4.)

남편과 함께 찾은 배론은 이제 막 빨갛게 노랗게 단풍이 물들고 있었다. 외인인 남편도 아름다운 이 성지가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함께 때로는 따로 돌며 구경도 하고 안내표지판도 자세히 읽고 있었다. 성지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황사영이 백서를 쓴 토굴과 실물크기 백서를 보았고, 최양업 신부님의 묘소 앞에서 시복시성 기도를 하며 신부님의 묘가 진천 배티에 있지 않은 것이 아쉬웠고, 의림지성당 다니신다는 해설사 분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셔서 함께 웃었다.(친정이 청주임)

8. 아산 남방제 교우촌, 청양 다락골 새터 탄생지, 부여 도양골 교우촌 (2021.10.9.)

남방제 성지는 조화서 베드로와 아들 조윤희 요셉 성인 조형물이 인상적이다. 십자가 모양 소나무 아래 두 부자의 형상을 보며 외인인 내 남편과 외아들 조중연 요셉이 떠올라 성가정이 되는 은총을 청했다.

새터 탄생지는 아직 조성 중으로 신자들의 봉헌을 받고 있었고, 최양업 신부님 기념관이 대성당 옆 한 곳에 잘 자리하고 있어 일생을 알기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달을 안은 골짜기 다락골 성지, 아름다운 성지로 잘 보존되길.

도양골 교우촌을 향해가며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의심하며 갔던 곳, 깊은 산골 복사꽃 마을 도양골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긴 것은 다름 아닌 우렁찬 수탉들. 지붕 위의 수탉 모형도 인상적이었지만, 성지를 헤집고 돌아다니며 우렁차게 울어대며 적막한 성지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전경이 제법 잘 어울렸다.

9. 서울 좌포도청터(종로성당순례지), 당고개 순교지 (2021.10.15.)

죽음 앞에서 어린 유대철만큼의 용기가 과연 나에게도 있는지 자신 없지만,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나의 믿음을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청했다. 신계역 사공원 내에 있는 당고개순교성지는 현재는 보기 좋게 가꾸어져 있으나 실상은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은 순교 터이다. 당고개 순교자 9명이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바오로 2세가 집전한 시성식에서 성인품에 올랐고, 이성례 마리아만이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한 시복식에서 뒤늦게 복자품에 오른 곳이다. 성지순례 후 만난 외인 지인이 내게 물은 질문이 있는데 1. 성지순례는 왜 하는가? 2. 종교 때문에 왜 목숨을 거는가? 나름 답변을 했지만 신자인 내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된 좋은 질문이었다.

10. 부산 오륜대 순교자 묘역, 수영 장대 순교지 (2021.10.30.)

자동차로 이곳까지 4시간 걸려 오는 시간도 지치는데 오로지 두 발에 의지해 이 먼 곳까지 신자들을 만나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셨을 신부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다. 한국인 신부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성사와 미사를 참례했을 때의 당시 신자들의 감격을 짐작할 수 있겠다. 수영장대순교지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바치던 할머니께서

순례 확인 스탬프의 위치를 알려주시고 이 성지에 대해 설명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나는 청주교구의 배티성지와 원주교구의 배론성지 및 대전교구의 몇몇 성지를 열거하며 꼭 순례해보시길 나도 권하며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우리 둘다 그분의 시복시성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같음을 느낄 수 있었다.

부산을 마지막으로 6개월에 걸친 최양업 신부님 관련 성지를 모두 순례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외인인 남편의 기꺼운 협조와 사춘기 청소년 아들의 마지막 순례지 동행은 저를 흐뭇하게 했고, 성가정을 향한 저의 지향도 하느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순례를 떠나며 바치는 기도예 의지하여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해 걸으며 기쁘고 힘들기도 했던 순례의 모든 순간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이제 순례를 마치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가 최양업 신부님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땀과 희생의 결실임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나의 신앙이 내 자녀와 후손에게도 계속 전해져 잘 간직되기를 희망하며 순례하는 동안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신 나의 주님이신 좋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끝.